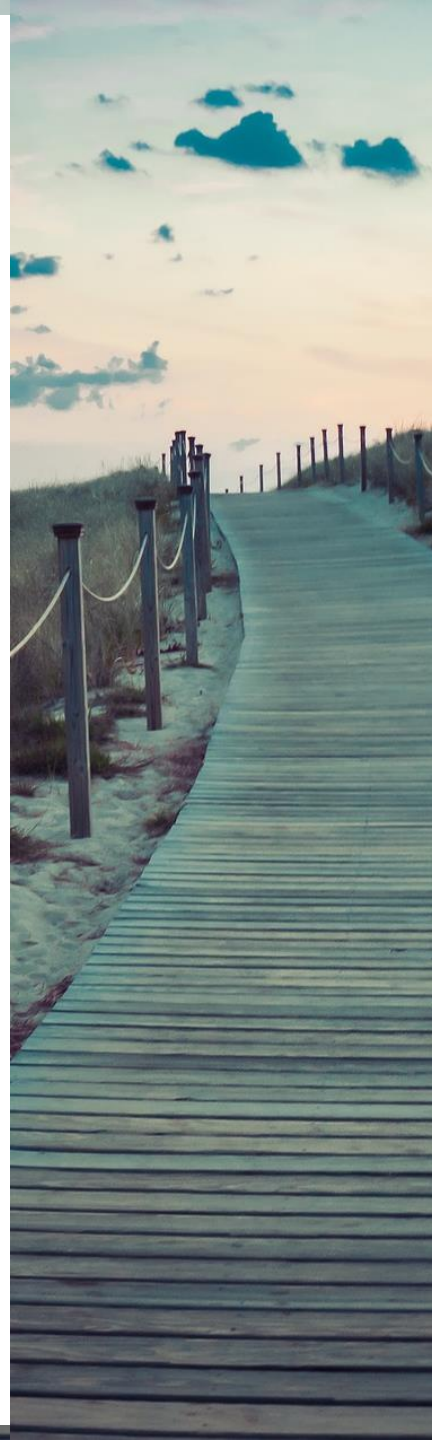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BIG HOPE CHURCH
큰소망교회

2024년

추석가정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이유

열왕기상 2장 1-4절 말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 다같이
성경 봉독 -- 열왕기상 2장 1-4절 말씀(신약 511쪽) -- 다같이
말씀 -----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이유 -----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좋은 시절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왕이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조언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왕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명하여 가로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기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삶의 지혜를 후손들이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2. 그 이유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한편으로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맹이 있었고, 관용이 있었고, 믿음의 패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스스로 그 원인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형통한 삶의 노하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3. 그 이유는 자손이 번성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언급됩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